



김영옥 부산진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등 직원들이 7월 1일 새벽 서면 거리에서 환경정비를 한 후 민선 9기 성공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깨끗한 거리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 부산진구”

민선9기 첫날 새벽 도심 대청소로 시작
김영옥 구청장과 간부 직원 서면 ‘출동’
장맛비 뚫고 골목 곳곳 누비며 ‘구슬땀’
“쓰레기 없는 글로벌 관광지 서면 달성”
민생 중심·현장 중심 행정 의지 드러내

부산진구는 7월 1일 민선9기 출범 첫날 취임식을 대신해 새벽 도심 환경정비와 직원 정례조례로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김영옥 구청장은 간부공무원 등 60여 명 직원들과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도심 환경정비로 민선9기의 첫 일정을 시작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서면 일대의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와 골목 곳곳을 정비하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민선9기 첫 공식 일정을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민선9기 임기 중에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몰리는 서면 거리의 쓰레기를 반드시 없애고 말겠다는 김 구청장의 각오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

환경정비를 마친 김 구청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 정례조례를 열어 민선9기 출범을 알리고 직원들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축하와 의전 중심의 행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직원들과 함께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또한 부산진구는 민선9기 역시 기존 구정 비전인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그대로 이어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슬로건과 각종 홍보물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

고, 민선8기에서 추진해 온 핵심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영옥 구청장은 “민선9기의 주인은 구민이며, 행정의 출발점도 언제나 현장이어야 한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 주민들의 일상을 살피고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약속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민선9기에 대한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민선9기에도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적지 개발, 서면 권 상권 활성화, 의료관광 산업 육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의 : 행정자치과 총무계(605-4102)